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COLLEGIUM VOCALE SEOUL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COLLEGIUM MUSICUM SEOUL

지휘 김선아

Conductor Sun-Ah Kim

전수미 · 백재은 · 김세일 · 정록기

Su-Mi Chun · Jae-Eun Paik · Seil Kim · Locky Chung

Producer 이은지 Eun-Ji Lee

Executive Producer 김인혁 Ian Kim

Balance Engineer 최정훈 Jung-Hoon Choi

Recording Engineer 박성범 Sung-Bum Park

Assistant Engineer 고승현 Seung-Hyun Goh

Recorded at 인천 갈산동 성당 Kalsan Catholic Church, Incheon

Microphone: DPA4006AE, 4011A, 4015A, 4018A, 3511ES

Neumann Usm69i, TLM170R

Recording Format: DXD

REQUIEM KV 626(COMPLETED BY F. X. SÜSSMAYR)
WOLFGANG AMADEUS MOZART(1756-1791)

Introitus		
01	<i>Solo Soprano, Coro - Requiem aeternam</i>	04:27
Kyrie		
02	<i>Coro - Kyrie eleison</i>	02:38
Sequenz		
03	<i>Coro - Dies irae</i>	01:52
04	<i>Soli - Tuba mirum</i>	03:23
05	<i>Coro - Rex tremendae</i>	01:55
06	<i>Soli - Recordare</i>	04:51
07	<i>Coro - Confutatis</i>	02:17
08	<i>Coro - Lacrimosa</i>	03:06
Offertorium		
09	<i>Soli, Coro - Domine Jesu</i>	03:44
10	<i>Coro - Hostias</i>	03:41
Sanctus		
11	<i>Coro - Sanctus</i>	01:19
Benedictus		
12	<i>Soli, Coro - Benedictus</i>	05:06
Agnus Dei		
13	<i>Coro - Agnus Dei</i>	02:51
Communio		
14	<i>Solo Soprano, Coro - Lux aeterna</i>	05:29

* 독일식 라틴어 (Deutsches Latein)

Total : 47:05

Introitus

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
et lux perpetua luceat eis.

Te decet hymnus Deus in Sion,
et tibi reddetur votum in Jerusalem.

Exaudi orationem meam,
ad te omnis caro veniet.

Dona eis Domine, dona eis requiem
aeternam
et lux perpetua luceat eis.

입당송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시온의 주여, 당신은 찬미 받아 마땅하오니.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서원이 바쳐지리라.
주여,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사람이 당신께 나아가리다.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Kyrie

Kyrie eleison.
Christe eleison.
Kyrie eleison.

자비송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Sequenz

Dies irae, dies illa
Solvat saeculum in favilla:
teste David cum Sibylla.

Quantus tremor est futurus,
Quando iudex est venturus
Cuncta stricte discussurus.

Tuba mirum spargens sonum
Per sepulcra regionum
Coget omnes ante thronum.

Mors stopebit et natura,
cum resurget creatura,
Judicanti responsura.

Liber scriptus proferetur,
In quo totum continetur,
Unde mundus judicetur.

Judex ergo cum sedebit,
Quidquid latet, apparebit:
Nil inultum remanebit.

Quid sum miser tunc dicturus?
Quem patronum rogaturus?
Cum vix justus sit securus.

부속가

진노의 날, 바로 그 날
세상은 재가 되어 없어질 지니.
다윗과 시빌의 예언이 이루어지리라.

심판관께서 강림하여
엄한 판결을 선포하실 때.
그 떨림이 어떠하랴!

신비한 나팔소리가 울리면
온 세상의 무덤을 뒤덮어.
모든 이들을 옥좌 앞으로 불러내리라.

모든 피조물이 다시 일어나
심판하실 분께 대답할 때
죽은 자도 산 자도 두려움에 떨리라.

모든 것이 썩어있는
생명의 책이 펼쳐지고
그것으로 온 세상은 심판 받으리라.

심판하실 분께서 앉으시면
감춰진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도 남김없이 되갚아지리라.

내가 그때에 비탄 속에 무엇을 말하리오?
의로운 자도 간신히 화를 면할 때
누구에게 변호를 부탁하리오?

Rex tremendae majestatis,
Qui salvandos salvas gratis.
Salve me, fons pietatis.

Recordare, Jesu pie,
Quod sum causa tuae viae,
Ne me perdas ilia die.

Quaerens me sedisti lassus:
Redemisti crucem passus:
Tantus labor non sit cassus.

Juste judex ultionis,
Donum fac remissionis,
Ante diem rationis.

Ingemisco tamquam reus:
Culpa rubet vultus meus
Supplicanti parce Deus.

Qui Mariam absolvisti,
Et latronem exaudisti,
Mihi quoque spem dedisti.

Preces meae non sunt dignae:
Sed tu bonus fac benigne,
Ne perenni cremer igne.

구원받을 이들을 자유롭게 하실
존엄한 대왕이시여.
저를 구원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기억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
저를 위하여 당신께서 이 땅에 계셨으니
그 날에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를 찾기 위하여 지치시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정의로운 되갚음의 심판자시여.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용서의 선물을 베푸소서.

제가 죄인으로 신음하나이다.
제 얼굴은 죄로 붉어졌나이다.
주여, 애원하는 저를 용서하소서.

막달라 마리아의 죄를 용서하시고
강도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저에게도 희망을 주셨나이다.

제 기도가 비록 보잘 것 없을지라도
좋으신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불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Inter oves locum praesta,
Et ab haedis me sequestra,
Statuens in parte dextra.

Confutatis maledictis,
Flammis acribus addictis,
Voca me cum benedictis.

Oro supplex et acclinis,
Cor contritum quasi cinis,
Gere curam mei finis.

Lacrimosa dies ilia
Qua resurget ex favilla
Judicandus homo reus:

Huic ergo parce, Deus,
Pie Jesu Domine
Dona eis requiem. Amen.

당신의 양떼 가운데 제 자리를 주시고.
염소 떼에서 건져 주시어
당신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주받은 이들이 혼란에 빠져
뜨거운 불꽃 속으로 던져질 때
축복받은 이들과 함께 저를 부르소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오니
참회하는 제 마음이 재와 같습니다.
제 마지막 순간에 저를 도와주소서.

눈물의 그 날, 바로 그 날
죄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잣더미 속에서 일어날 그 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로운 주 예수님.
그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아멘

Offertorium

Domine Jesu Christe, Rex gloriae,
libera animas omniurn fidelium
defunctorum

de poenis inferni,
et de profundo lacu:

Libera eas, de ore leonis,
ne absorbeat eas Tartarus,
ne cadant in obscurum,
sed signifer sanctus Michael
repraesentet eas in lucem sanctam:
Quam olim Abrahae promisisti,
et semini ejus.

Hostias et preces, tibi, Domine, laudis
offerimus:

tu suscipe pro animabus illis, quarum
hodie memoriam facimus:

fac eas, Domine, de morte transire ad
vitam,

quam olim Abrahae promisisti et semini
ejus.

봉헌송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이시여.
믿음 안에서 죽은 이들의 영혼을

지옥의 고통과

깊은 심연으로부터 구하소서.

그들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시고.

지옥이 그들을 삼키지 않게 하시며.

어둠 속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천사들의 기수 성 미카엘이

그들을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예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소서.

주여, 찬미와 기도의 희생제물을 바치오니.

저희가 오늘 기억하는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 그들의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에
이르게 하소서.

당신께서 예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소서.

Sanctus

Sanctus. Sanctus, Sanctus,
Sanctus Dominus Deus Sabaoth.
Pleni sunt caeli et terra gloria tua.
Hosanna in excelsis.

Benedictus

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
Hosanna in excelsis.

Agnus Dei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eis requiem.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eis requiem sempiternam.

Communio

Lux aeterna luceat eis, Domine:
cum sanctis tuis in aeternum, quia pius es.
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
et lux perpetua luceat eis,
cum sanctis tuis in aeternam,
quia pius es.

상투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누리의 주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베네딕투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주의 어린양

주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그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주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성체송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주여.
당신 성인들과 함께 비추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당신 성인들과 함께 비추소서.
자비하신 주여.

모차르트 / 레퀴엠 D단조, K.626

이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모차르트 최후의 작품인 ‘죽은 이를 위한 미사(Missa pro defunctis)’, 즉 레퀴엠은 엄밀한 의미에서 미완성에 그친 ‘파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일찍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천재를 상징하는 일종의 아이콘이 되었다. 아마도 서양음악 역사상 가장 많은 전설과 신비를 몰고 다니는 작품이며, 창작 과정을 둘러싼 술한 의문과 작품의 정체성에 대한 뜨거운 논의는 거의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식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영화 <아마데우스>는 이 모든 신비에 결정적인 아우라를 더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음악 작품으로서의 모차르트 레퀴엠에 총체적으로, 깊이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모든 허구와 신화를 걷어내고 작곡가가 남긴 미완성 악보와 그 이후에 벌어진 역사적 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크리스토프 볼프가 정확하게 지적한 대로, 모차르트 레퀴엠은 서양음악 역사상 최초로 음악 원전과 작곡 양식, 심지어 필적학에 관한 현대적인 의미의 엄밀한 분석과 검증을 받은 작품이다. 말하자면 서양 음악사에서 음악학(音樂學)이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모차르트의 때 이른 죽음은 레퀴엠 전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폰 발제그(Franz von Walsegg) 백작의 부인 안나가 1791년 2월 14일에 스무 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다. 빈 남서쪽에 있는 슈투파흐 성의 영주였던 백작은 아마추어 연주자로 본래부터 다른 작곡가들에게 곡을 의뢰한 다음 자기 작품으로 발표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죽은 아내를 위해서 – 당연히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 중개인을 통해 1791년 여름(7월 경)에 모차르트에게 레퀴엠 작곡을 의뢰했다. 제시한 보수(50두카트에 절반은 선지불)도 좋았지만 5월에 슈테판 대성당의 부카펠마이스터에 취임했던 모차르트로서는 빈으로 이주한 이후 별로 쓰지 않았던 교회음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난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제의를 선포 받아들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티토 황제의 자비> 작곡과 초연(프라하), <마술 피리> 초연 등 다른 작품들 때문에 레퀴엠 작곡은 아마도 <마술 피리> 초연이 끝난 10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11월 20일부터 침상에 눕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본격적인 작곡 작업은 아마도 한 달 남짓한 기간이었을 뿐이며, 짧은 시간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초안 형태라고는 해도 놀랄 만큼 많은 양을 작곡한 셈이다.

12월 5일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레퀴엠은 미완성으로 남았다. 오케스트레이션까지 모든 작곡이 완료된 부분은 ‘임당송(Introitus)’ 뿐이었으며, ‘자비송(Kyrie)’부터 8마디만 작곡한 ‘눈물의 날(Lacrimosa)’을 제외한 ‘부속가(Sequentia)’ 전체와 ‘봉헌송(Offertorium)’은 성악 파트만 완성되었을

뿐 기악 파트는 바소 콘티누오와 드문드문 단편적인 모티브만 제시되었을 뿐이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만 콘스탄체는 모차르트가 마지막 '영성체승(Communio)'에서 '입당송'과 '자비송'을 반복하려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눈물의 날'(의 첫 8마디)가 모차르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업한 부분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레퀴엠 전체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눈물의 날' 작곡을 뒤로 미루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콘스탄체로서는 이미 절반의 선금을 받은 레퀴엠을 완성해서 의뢰인에게 넘겨주는 일이 절박했으므로 죽은 남편의 몇몇 측근들을 상대로 완성 작업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아이블러(Joseph Eybler)를 위시한 몇 명이 악보를 받아 작업을 했지만 중도에서 포기했고, 결국 최종적인 의뢰는 쥐스마이어(Franz Xaver Süssmayr)에게 돌아갔다. 쥐스마이어는 1791년에 모차르트의 곁에서 <마술피리>와 <티토 황제>의 작곡을 보좌한 음악가로, 무엇보다도 레퀴엠 작곡 과정에서 모차르트와 함께 연주를 하고 기악 편성 등 완성에 관한 지침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악보를 받은 쥐스마이어는 아이블러 등이 앞서 했던 오케스트레이션 작업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몇몇 부분은 수정 및 보완했으며, '거룩하시도다(Sanctus)', '하느님의 어린 양(Agnus dei)', '영성체승'과 '눈물의 날'의 8마디 이후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새로 작곡했다. 전체 완성 작업은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고 석 달 안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레퀴엠의 일부(아마도 '입당송'과 '자비송')는 그가 세상을 떠나고 불과 며칠 후인 12월 10일에 성 미하엘 대성당에서 있었던 모차르트를 기리는 미사에서 연주되었으나 완성된 전곡은 1793년 1월 2일 빈에서 황실 도서관장이자 모차르트의 가장 충실한 후원자 중 한 사람이었던 스비텐(Gottfried van Swieten) 남작이 모차르트 유가족을 위해서 조직한 연주회를 통해 초연되었다. 그런데 콘스탄체는 레퀴엠 원본을 백작에게 보내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정서한 필사본을 몇몇 고위 인사들과 출판사에도 팔면서 작품을 본래 미완성작이며 쥐스마이어가 완성했다는 사실을 숨겼다. 또한 1800년에 총보를 처음 출판한 브라이트코프 & 헤르텔 역시 쥐스마이어가 자신의 역할을 설명한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묵살했다. 그러나 쥐스마이어가 편지를 독자적으로 신문에 공표하고, 모차르트의 전기작가인 니메체크와 로슬리츠가 작곡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혼란과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콘스탄체나 아이블러, 쥐스마이어 등 작품의 완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이들이 자세한 사실을 밝히기를 꺼렸기 때문에 레퀴엠에 관한 몇몇 부분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고 말았다.

한편 1825년에 작곡가이자 음악 이론가 및 법학자였던 베버(Jacob Gottfried Weber)가 <모차르트 레퀴엠의 진정성에 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고 레퀴엠이 사실상 모차르트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레퀴엠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베토벤과 괴테, 슈만 같은 이들까지 논쟁에 참여했으며, 1827년에는 처음으로 출판 악보에 쥐스마이어의 이름이 (비록 내용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언급되기에 이른다. 결국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막시밀리안 슈타틀러, 오토 얀, 이그나츠 폰 모젤, 요하네스 브람스, 리처드 태라스킨 등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자필 악보에서 모차르트가 남긴 부분과 다른 사람들, 특히 쥐스마이어가 보필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1965년 노바크(Leopold Nowak)가 편집한 신모차르트 전집(Neue Mozart-Ausgabe)에서 모차르트가 남긴 미완성 악보를 제시하면서 작품의 기원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많이 풀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과연 쥐스마이어가 완성한 부분,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작곡한 부분이 작곡가의 본래 의도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또 1960년에 베를린 국립 도서관에서 발견된 모차르트 자신의 레퀴엠 스케치(여기에는 ‘눈물의 날’의 마지막 부분에 쓰고자 만든 ‘아멘’ 푸가 16마디도 포함되어 있다. 이 푸가의 첫 주제는 ‘입당송’ 주제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쥐스마이어의 작업에 음악문법적인 오류가 적지 않다는 사실 역시 그의 작업을 수정 및 보완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작품을 둘러싼 학문적 논쟁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저마다 자신이 새롭게 편집, 혹은 보완한 모차르트 레퀴엠 악보를 만들게 된다. 이들의 작업은 쥐스마이어의 작업을 보완하는 데 그친 것(바이어, 랜던)도 있지만 반면 쥐스마이어의 작업을 완전히 삭제하거나(몬더), 베를린에서 발견된 ‘아멘’ 푸가를 활용해서 ‘눈물의 날’을 새로 만드는 등(몬더, 드루스, 레빈)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쥐스마이어의 작업에 모차르트의 의도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는 결국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이다. 또한 레퀴엠의 작곡을 옆에서 지켜보고 도왔던 쥐스마이어가 훗날의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리라는 점 역시 충분히 추측 가능하다. 실제로 콘스탄체는 쥐스마이어에게 책상 위에 있던 악보 스케치도 함께 넘겼다고 밝혔으며, 모차르트가 마지막 며칠 동안 병상에서 쥐스마이어에게 작품 완성에 대한 지시를 했다는 증언도 있다. 게다가 모차르트가 작곡을 할 때 통상적으로 먼저 머릿속에서 전체 작품에 대한 명확한 구상을 완성한 후에 악보에 기입하는 절차를 따랐음을 감안하면, 또 쥐스마이어가 훗날 작곡가로서 이에 필적할 만한 어떤 완성도나 유기적인 구상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가 새로 작곡한 부분에도 어떤 형태로든 모차르트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추측은 결코 무리한 억측은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어떤 판본이 새롭게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쥐스마이어가 D단조 레퀴엠이라는 작품에서 작곡가 모차르트를 제외하고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은 변함없다. 그 누구도 쥐스마이어를 통하지 않고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만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200년이 넘는 연주 전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문화적 유산이다.

모차르트는 레퀴엠을 작곡하면서 바로크 시대 이래의 교회음악과 레퀴엠 전통, 빈에 이주한 다음 새롭게 알게 되어 깊이 연구했던 헨델과 바흐 가문(대바흐, W.F.바흐, C.P.E.바흐)의 음악, 그리고 잘츠부르크 시절에 직접 연주에 참여하며 강한 인상을 받았던 미하엘 하이든의 레퀴엠(1771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부속가’인 ‘진노의 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구원과 안식에 대한 희망, 그리고 천상과 지상을 아우르는 공동체 의식을 노래했던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은 14세기에 가장 늦게 레퀴엠에 도입된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바로크 시대부터 중요하게 취급되기 시작했는데, 모차르트 역시 ‘진노의 날’에 매우 공을 들였다. 아마도 최후의 심판을 묘사한 충격적이고 회화적인 묘사가 두드러진 라틴어 가사가 본질적으로 오페라 작곡가였던 모차르트의 상상력을 크게 자극했던 것 같다. 격렬하게 질주하는 ‘진노의 날’ 첫 합창부터 마지막 ‘눈물의 날’에서 모든 미련을 내려놓는 듯한 투명한 평온함은 마치 작곡가가 자신의 때 이른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느낌마저 준다.

한편 음악적인 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성악, 특히 투명하면서도 간결한 4성부 합창이 작품 전편의 핵심을 이루며 시종일관 작품을 이끌어 간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특정 선율을 길게 강조하는 일이 드물고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등 모차르트가 후기 작품에 즐겨 썼던 악기들이 배제된 기악 파트 역시 풍부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반주 기능에 머물고 있다. 이는 작곡가가 잘츠부르크 시절에 썼던 교회음악 작품들이나 또 다른 미완성작인 C단조 대미사(K.427), 혹은 하이든의 후기 미사곡들과는 확연히 다른 레퀴엠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오페라에서 <코지 판 투테>가 그랬듯이 모차르트의 교회 음악이 점점 더 간소하고 침착하고 유려해지면서 뜨거운 정열을 내면으로 갈무리하는 새로운 경지로 접어드는 단계였음을 알려준다. 또한 곳곳에서 탁월한 대위법을 구사하면서 작품 전체의 흐름을 규정하고 유기적인 통일성을 만드는 것이 돋보이는데, 이것은 바흐와 헨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입당송’과 ‘자비송’에서는 헨델의 작품들에서 직접 주제를 인용하기까지 했다. 그런 의미에서 레퀴엠은 비록 안타깝게도 미완성에 그치기는 했지만 모차르트가 오페라 작곡가로서 쌓아올린 극음악에 대한 통찰력과 바흐와 헨델에게서 배운 강력한 표현, 그리고 빈 고전파 음악의 무르익은 음악 언어가 하나로 엮인, 10년 동안의 빈 시대를 총정리한 기념비적인 작품인 것이다. 또한 모차르트가 숨을 거둔 순간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레퀴엠 신화는 모차르트와 당시 사회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자 한 음악 작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기념비이기도 하다.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Collegium Vocale Seoul

바로크 시대(1600-1750)의 합창,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그 당대의 양식과 스타일을 연구하여 연주하는 새로운 바로크 합창 음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2007년 창단된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은 현재 국내외에서 성악이나 합창지휘를 전공하고 솔리스트, 시립합창단원, 합창지휘자로 활동 중인 전문음악가들이 모인 합창단이다.

정기적인 연습과 연구 모임을 통해 바로크 음악에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단체로서, 창단 이후 G. 카리시미의 오라토리오 '에프테' 한국초연, 서울국제고음악페스티벌 초청 프랑스 바로크 작곡가인 M. 샤르팡티에의 '성탄미사' 한국초연, H. 슈츠와 J. S. 바흐의 모테트를 연주하였고, 연세대 음악연구소 초청 헨델 페스티벌에서 '딕싱 도미누스'를 세계적인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료 테라카도(Ryo Terakado, 헤이그 왕립음악원 교수)의 지휘로 연주하였다.

서울국제고음악페스티벌, 한국고음악협회, 서울시합창연합회, 한국합창연구학회, 한국합창총연합회등 학계 초청연주를 비롯하여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주최로 바흐콜레기움재팬 (Bach Collegium Japan)의 지휘자 마사아키 스즈키(Masaaki Suzuki, 예일대 교수), 슈투트가르트 캄머코어(Kammerchor Stuttgart)의 지휘자 프리더 베르니우스(Frieder Bernius) 초청 세미나 시범연주 등 세계적 대가들과 호흡을 같이 하였고, 최근에는 '교회음악연구회시리즈'를 통해 로마 악파와 베네치아 악파, 17세기 북독일 악파, F. 멘델스존의 합창음악, 19세기 독일합창음악, M. 뒤르플레의 레퀴엠 등 전 시대에 걸쳐 음악사적 의미를 지닌 정통합창음악들을 합창애호가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제1회 여수세계합창제에서 종교음악부문 입상하여 한국합창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16년 제 32회 일본 타카라즈카 국제 챔버콤파이어 콩쿨에서 3개 부문 금상 수상의 쾌거를 거두었다.

2017년 창단 10주년을 맞은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은 바흐의 모테트 전국연주를 LG아트센터 전석매진으로 성공리에 마쳤으며, 7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겸하여 독일 5개 도시 순회연주를 의미 있게 마무리 하였고 지난 6월 첫 정규앨범 'Motet'를 Sony Classical 레이블로 발매하였다. (www.collegiumseoul.com)

소프라노	정연경(수석) 김명재 송태윤 송현아 오선주 장은별 최진랑 한금실 홍민정
알토	이소명(수석) 김요섭 김지애 박은경 이자용 임선희 임소정 임재민 황가연
테너	함민규(수석) 강경묵 김광명 김한용 박문진 엄세준 정지명
베이스	김정석(수석) 김영준 김진수 이완준 전재민 정승현 천재환 최유빈

지휘자: 김선아

Conductor Sun-Ah Kim

-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B.M., 오르간 전공) 졸업
- 독일 Düsseldorf 국립음대 (국가고시 A-Examen, 교회음악) 졸업
- 독일 Düsseldorf 국립음대 합창지휘 Diplom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 독일 Düsseldorf시 Philippus Kirche Kantor (교회음악감독) 역임
- 국립합창단 부지휘자 역임, 국립합창단, 부천시립합창단 객원지휘
- 한국합창연구학회 회장, 바흐솔리스텐서울 지휘자 역임
- 서울국제고음악페스티벌, 한국합창심포지엄, 일본쓰루고음악페스티벌, 금호스페셜, 한국합창대제전, 춘천국제고음악페스티벌, 서울오라토리오 페스티벌, 독일 Linnich Kultursommer 등 초청연주 지휘
- 일본 타카라즈카 국제합창콩쿨, 야마나시 고음악콩쿨, 여수 국제합창콩쿨 입상
- Sony Classocal, AUDIOGUY 레이블에서 다수의 음반 녹음
- 현) 단국대학교 합창지휘 전담강사, 성결대, 장신대 출강
- 현)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지휘자



Collegium Vocale Seoul

Collegium Vocale Seoul (Conductor: Sun-Ah Kim), founded in 2007,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hoirs in Korea consisting of members who are professional conductors, singers and voice/choral conducting major students.

This ensemble is acclaimed for their “breath-taking and aesthetic performances of the sacred choral music from the Renaissance to Romantic era” and “polished, well-blended sound with skills of clear diction transmission”. (Choir and Organ, Korea)

After several performances since 2008, Collegium Vocale Seoul finally started to have their independent regular concerts. Along with their awards at several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s and successful regular concerts, eventually CVS became one of the sacred choral music specialists, and an outstanding ensemble in Korea.

April 2014, Frieder Bernius estimated their potentiality after his choral seminar in Seoul, “As far as a choir has self-motivated joy and musical curiosity toward music, they will definitely grow more and more. And I am sure that this choir will continue to develop since they reacted immediately by my gesture and finger tips, not to mention their great passion for singing. ”

Between 2014 and 2015, they performed J.S. Bach's St. John Passion, Händel's Messiah and they did one of series accompanied performance of J.S. Bach's cantatas working with legendary baroque oboist, Alfredo Bernardini.

In 2016 especially, they performed Bach's B-Minor Mass at the Seoul Arts Center and St. Matthew Passion collaborated with world renown Bach specialist, Masaaki Suzuki(Yale University, Director of Bach Collegium Japan) successfully in both Japan and Korea.

Collegium Vocale Seoul has performed a wide range of choral repertoire from Renaissance to contemporary such as Brahms, Mendelssohn, Durufle, Arvo Pärt including many works of German choral composers and they have been getting attention and recognition more and more in and outside country since they awarded the second place prize at Yeosu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in 2013 and also second prize with three gold medals at the 32nd Takarazuka International Chamber Choir Competition in 2016.

This ensemble's first regular album on Sony classical International label, 'Motet' is scheduled for release in June, 2017 as they were invited for touring concerts in five main cities in Germany such as Berlin, Leipzig to mark 500th year of protestant reformation on July.

CVS is now on the verge of a new leap forward through their continuous work of recordings after the first album. Mozart's 'Requiem' in January, 2018 and their regular performance with J.S. Bach's St. John Passion on March.

Under the direction of conductor, Sun-ah Kim, they will continuously go on their path to researching and learning performance practices, different musical forms and styles of choral music, not only for just better and successful performance, but also for spreading out messages from music.

www.collegiumseoul.com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Collegium Musicum Seoul

음악감독 김선아, 리더 백승록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은 G. P. Telemann과 J. S. Bach가 라이프치히에서 함께 연주했던 'Collegium Musicum'의 음악사적 의미를 기리며, 바로크 시대의 기악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는 시대악기 연주단체로서 2016년에 창단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T. Koopman, J. Savall, M. Suzuki, W. Christie, S. Kuijken, R. Terakado, M. Huggett, A. Bernardini, W. Kuijken 등 세계적인 바로크 연주자들과 함께 수학한 최고 수준의 고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은 단순히 바로크 음악을 시대악기로 연주하는 것뿐 아니라, 작품이 쓰여진 당대의 시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오늘날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역사주의 연주'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를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바로크음악을 넘어 고전, 낭만음악까지 시대악기 연주를 확장하여 국내 음악계에 '역사주의 연주'라는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창단 이후, 바로크 전문합창단인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연하고 있으며, 원주시립합창단, 시흥시립합창단, 공주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아산시립합창단, 앤섬코랄과 J.S.바흐 'b단조 미사', 헨델의 '메시아', 비발디 '글로리아', 슈베르트의 '미사', 모차르트의 '레퀴엠' 등의 작품들을 성공적으로 협연하였다.

Violin1	백승록(악장) 노신옥 정경아 김한글
Violin2	김나연 김경리 홍지수
Viola	조형국 김연수
Cello	강지연 김상민
D.Bass	신동식
Clarinet	최정현 정연준
Bassoon	김혜민 김민성
Trumpet	노민호 김상민
Timpani	이규봉
Trombone	차태현 홍승준 김솔
Organ	채희영



소프라노 전수미

Soprano Su-Mi Chun

- 예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독일 Mannheim 국립음대 Diplom(전문연주자과정) 졸업
- 독일 Mannheim 국립음대 Examen(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세종 콩쿨 대상, 이대웅 콩쿨 1등 입상
- 다수의 독창회 및 요한수난곡, 메시아, 천지창조 등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협연
- Die Zauberflöte, Le nozze di Figaro 등 오페라 주역 출연
- 서울예술가곡협회, 우리가곡연구회 독일가곡연구회 회원
- 현) 성결대 객원교수



메조 소프라노 백재은

Mezzo Soprano Jae-Eun Paik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뉴욕 메네스 음대 석사, 전문 연주자 과정 졸업
- 뉴욕 메트로폴리탄 국제콩쿨 입상, 슈리브포트 오페라 '올해의 성악가 콩쿨' 입상,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신인상 수상, 자랑스러운 현대인상 수상
- 폴란드 브로츠와프 국립오페라단, 뉴욕 슈타와 오페라단, 그린스보로 오페라단, 버지니아 오페라단, 중국 푸저우 오페라단, 폴란드 키푸라 페스티벌, 국립오페라단 등 국내외 오페라 단체와 오페라 다수작품 주역 출연
- 서울시향,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 그리니치 코럴 소사이어티, 아칸소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폴란드 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우수 음악 단체와 독창자로 협연
- 현) 서울대학교, 이화여자 대학교 출강



테너 김세일

Tenor Seil Kim

- 로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스위스 제네바 음악원, 스위스 취리히 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 아테네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 2위, 취리히 키바니스트리트 듀오 콩쿠르 1위,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 최고의 성악가상 등 수상
-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비엔나 뮤직페라인, 바덴바덴 페스트슈필하우스, 네덜란드 오페라 스튜디오,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취리히 톤할레, 루체른 헨델 페스티벌 등 국내외 주요 극장과 음악축제 초청
- 유럽 주요 무대에서 바흐의 <마태 수난곡>, <요한 수난곡> 에반겔리스트(복음사가)역으로 활동 중
- 2014 KBS Classic FM 주관 '한국의 클래식 내일의 주역들' 음반 녹음 (피아노 루돌프 안센)
- 2015 서울시 오페라단 국내초연 <오르페오> '오르페오'역, 2017 예술의전당 오페라 <마술피리> '타미노 왕자'역 출연, 국립합창단 <메시아>, KBS교향악단 <카르미나부라나>, 금호아트홀 '보컬시리즈' 등 참여, 코리안심포니, 바로크합주단, 대전시립합창단, , 국립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등과 협연
- 2011, 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 예술인 선정
- 2015 EBS 라디오 '클래식 드라이브' 진행자, 2016 고양문화재단 마티네콘서트 진행자 역임



바리톤 정록기

Baritone Locky Chung

- 한양대학교와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대학원 졸업
- 뮌헨 ARD 국제콩쿠르 수상, 슈투트가르트 볼프 국제콩쿠르, 쾰비카우 슈만 국제콩쿠르 우승
- 일본 문화청 주관 예술상 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베를린 아들러 메니지먼트 소속으로 베를린 필하모니, 뮌헨 가슈타익, 프랑크푸르트 알테오퍼, 런던 위그모어홀, 에딘버러 페스티벌, 파리 루브르 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쥐리히 톤할레, 밀라노 아우디토리움, 토론토 마세이홀, 도쿄 아사히홀 등 유명연주홀에서 릴링, 쿠프만, 프뤼베크, 체카토, 슈라이어, 스즈키 등의 거장 지휘자와 게이지, 힐, 드레이크 등의 저명 피아니스트들을 파트너로 콘서트 및 독창회 전문가수로 활발히 활동 중
-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국립 및 주요 시립합창단과의 협연 및 독창회로 국내 활동 중
-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전임강사 역임
- 현)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







